

중기부, ‘K-TOP’ 시범서비스… 기업 투자유치 적극 지원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 탑재
2.4만개 프로젝트 우선 적용 대상
내년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 착수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창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서비스가 4일 본격 개시한다.

1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2만 4000여개 프로젝트가 K-TOP의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기술평가 데이터를 개방해 기술금융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TOP(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는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서비스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업에 개방한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라 기업·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민간단체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리고 중기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

한국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 평가모형		
기술혁신역량지수 Tech-Index	개요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지수화하여 제공 ▶타기업 대비 상대적 위치정보와 분석의견 제공
	입력정보	▶기업정량정보(기술개발, 지식재산권 실적 등) ▶일부 재무정보(급여, 개발비 등)
기술평가표준모델 KTRS-FM	개요	▶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성 등급 및 평가의견 제공 ▶신속 보증지원 및 업력 초기기업 평가에 최적화
	입력정보	▶기업 정량정보(R&D 지표 14개) ▶25개 내외 체크리스트 문항
기술원천성 평가모형	개요	▶특허 DB 분석을 통해 기술의 핵심성, 독창성, 파급성 등 분석 ▶기술의 원천성 등급과 분석 의견 제공
	입력정보	▶기술개요 입력→핵심키워드 추출해 텍스트 유사도 기반으로 유사 특허기술 군집과 비교·분석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하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기보, 기정원, 창진원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기술평가 데이터 15만여건, 특허정보 800만여건에 근거를 둔 평가모형을 기업 평가, 지원효과 분석,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TOP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거나 사업 성과지표로 도입하는 등 개별 지원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적정한 지원기업을 선별하거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력도 효율화한다.

시중은행, VC 등 민간 금융기관이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TOP 등급·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기업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해당 기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또 K-TOP과 시중은행 플랫폼을 연계해 기보의 보증 및 은행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기술금융 프로그램 개발도 내년초 착수한다.

K-TOP 활용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평가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새로 입수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K-TOP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보와 유럽투자은행

이 협업해 ‘글로벌 진출기업 평가모형’을 만들거나 ‘스타트업 평가모형’ 등 기업 유형별 특화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해 K-TOP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까지 K-TOP 도입을 확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협약기관 외 모든 중소기업들에게도 K-TOP을 전면 개방해 민관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기틀을 견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AI 기반의 K-TOP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해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기술 평가가 어려워 기술금융 구현이 제약된 민간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TOP에는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 등 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가 탑재돼 있다.

이들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손쉽게 등급·점수화할 수 있다. 또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기업 자가진단 및 평가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5급 신입직원 공개 모집

내일부터 21일까지 서류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역량 있는 신입직원(5급)을 공개 모집한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804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설립한 경제단체다.

채용분야는 일반사무직으로 중기중앙회 인사규정상 결정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방식은 ‘정규직(5급)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2개월의 현업부서 인턴십을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채용 관련 추가정보는 중기중앙회 입사지원 전용 사이트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반값으로 렌탈 하세요”

할인·캐시백 등 특별 프로모션

코웨이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달 27일까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코웨이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자사몰인 코웨이닷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12개월 렌탈료 반값 할인, 최대 12만 원 캐시백 지급, 제휴 쿠폰팩, 사은품 제공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코웨이 인기 제품인 아이콘 정수기 시리즈 신규 렌탈 고객에게 6개월의 렌탈료를 50% 할인해준다. 또한 비텍스 안마베드와 마인 시리즈, 시그니처 안마의자 등 비텍스 인기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의 렌탈료 반값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리블리노멤버’ 프로모션

구매 금액대별 고급 침구세트 증정

에이스침대가 12월1일까지 ‘리블리노멤버(Lovely November)’ 프로모션을 펼친다.

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침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안락한 침실 분위기를 극대화해 줄 고급 침구 세트를 제품 구매 금액대별로 증정한다.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400만원 이상,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430만원 이상 구매시 ‘웰크론 차렷이불 세트’(K)를 증정한다. 또한 대리점에서 670만원 이상,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700만원 이상 구매시 ‘웰크론 호텔 베딩 세트’(Q/K)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1550만달러 수출 성과

KBIZ관 통해 상품박람회 참가 지원
408건, 3200만 달러 상당 상담 진행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부대행사로 한국상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10건, 1550만달러의 수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29~30일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부대행사로 열린 박람회에서 뷰티, 푸드 등 25개 중소기업, 29개 부스로 ‘KBIZ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식, 시연 등 참여기업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시회 기간 동안 KBIZ관 참여 25개 기업은 408건, 3200만 달러 상당의 상담을 진행했고 실제 10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부대행사로 열린 한국상품박람회에 ‘KBIZ관’을 꾸렸다. 참가 기업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수출 구매계약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기능성 음료를 생산하는 테일러팜스 이은천 상무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스위스 소재 바이어와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구매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해 첫 유럽 진출 성과를 이

어냈다”며 “오스트리아 바이어 뿐만 아니라 독일, 헝가리,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적의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초화장품을 생산하는 트레이딩랩 이승훈 대표는 “주로 중동 국가 바이어

공정위, 야마자키마작-두광기계 담합 적합… 과징금 1.7억 부과

“공공 예산낭비 초래 행위 적발·제재”

글로벌 공작기계 제조사인 일본의 야마자키마작이 국내 공공기관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공공기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자신의 판매대리점인 두광기계와 2019년 12월~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

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며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1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